

<b>보도</b>	<b>2023.9.19.(화) 09:30</b>	배포	2023.9.19.(화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김진석 (02-3145-7010)
		담당자	팀 장	최상두 (02-3145-7012)

## 금감원, 「2023년 증권·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」 개최

### I .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3.9.19.(화)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증권·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\*하였음
  - \*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증권·선물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대면 워크숍
- 금번 워크숍은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
  -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, 랩·신탁 영업 관행, 사익추구행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

<b>「증권·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」 개요</b>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□	(일시·장소) '23.9.19.(화) 09:30~11:30,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
□	(참석자) 금융감독원, 증권선물회사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, 금융투자협회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[금융감독원] 금융투자검사국장 등</li> <li>- [금융투자업계] 증권사(60개사)·선물사(3개사)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, 금융투자협회 등 200명 내외</li> </ul>
□	(주요발표내용) ①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② 랩·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 ③ 사익추구행위 관련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

## II. 주요 발표 및 논의내용

### ①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

- 성과보수체계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,
- 점검 결과 확인된 개선 필요 사례들을 공유하고,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장기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보수체계 운영을 유도하였음

#### < 성과보수체계 운영 시 주요 유의사항 >

- ① 법규상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(40%) 및 최소 이연지급 기간(3년)을 준수하여야 함(지배구조법 시행령 §17③)
- ②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(지배구조법 시행령 §17②)을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됨
- ③ 증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한 성과보수 지급수단(주식 등)을 활용하여야 함(지배구조 감독규정 §9③)

### ② 랩·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

- 채권형 랩·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행위의 발생 원인 및 양상을 공유하는 한편
- 랩·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
  -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음

### ③ 사익추구행위 관련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

-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·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,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,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였으며,
- 사익추구행위 방지를 위해,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
  -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음

### Ⅲ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--

- 금번 워크숍은 그간 점검·검사 결과 드러난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으며
  - 증권업계가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-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임